

## [ 목포권 ]

## 목포~제주 승선예약률 '100%'

전국서 제주행 수학여행단 몰려  
내달초까지 235개학교 6만4천명

목포항이 '제주 수학여행단'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www.'목포~제주를 운항하고 있는 1만 2천t급 크루즈형 여객선 '씨월드 라인')을 이용한 수학여행 단이 목포항으로 몰리면서 다음 달 초까지 승선 예약률이 100% 완료된 상태"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작돼 6월 초까지 예약된 수학여행단은 전국 235개 학교 6만4천102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5만 1천181명)에 비해 25.2% 증가했다.

특히 지난 해까지 미미하던 경상도와 제주지역 11개교 3천여명의 학생들이 목포~제주 또는 제주~목포 여객선을 이용하는 등 수학여행지 패턴에도 큰 변화가 일고있다.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회장은 "경상도 지역 학생들의 경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들어갔다가 여객선으로 나와 남도지역을 탐사하면서 귀향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수학여행단과 함께 목포항을 통해 건축자재와 특별 시설물 등 화물도 42% 증가했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출항하는 이 카페리는 여객 정원 1천310명, 차량 600대(승용차 기준)로 국내 운행 카페리 중 제일 크고 빠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15일 확·포장이 완료된 목포 여객선 터미널~조선내화 구간의 2단계 해안도로 전경. /목포=임영춘기자 lyc@



## 신안군 신청사 건립공사 첫 삽

신안군 신청사 건립사업이 시작됐다. 신안군은 지난 12일 유관기관 단체장과 출향 인사,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압해면 신장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거졌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 신청사는 총 사업비 260억원을 들여 연면적 3천 442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된다. 신안군은 내년 말 청사가 완공

되면 오는 2008년부터 압해면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대민행정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난 38년의 목포시 더부살이를 마감하게 된다.

또한 군청사의 개정과 더불어 압해대교 및 운남대교가 건설되고 암태~암해간 새천년대교 건설, 신도시 개발 등 꾸준한 대형 사업들이 활기를 띠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되며 오는 2008년부터 압해면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대민행정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난 38년의 목포시 더부살이를 마감하게 된다.

또한 군청사의 개정과 더불어 압해대교 및 운남대교가 건설되고 암태~암해간 새천년대교 건설, 신도시 개발 등 꾸준한 대형 사업들이 활기를 띠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목포 북항 '요트 메카'로 뜯다

## 170억 들여 마리너 시설 등 항만 관광지 개발

목포가 요트산업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목포시는 북항 목포해양경찰서 후면 해안에 요트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해 즐길거리, 물거리, 먹을거리가 어우러진 다기능 항만 관광지로 개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곳에는 국비와 민자 등 170억원이 투입돼 2008년까지 50피트 요트 50척을 계류할 수 있는 부유체식 마리너 시설을 비롯 주차장, 육상 적치장, 클럽하우스, 레포츠 교육장 등 부대시설이 건립된다.

김장홍 해수농업과장은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이 곳에는 국비와 민자 등 170억원이 투입돼 2008년까지 50피트 요트 50척을 계류할 수 있는 부유체식 마리너 시설을 비롯 주차장, 육상 적치장, 클럽하우스, 레포츠 교육장 등 부대시설이 건립된다.

김장홍 해수농업과장은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요트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형 요트를 20척 정도 투입하고 주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당 신도심 평화광장 일대와 내항, 대반동, 북항 등을 놓고 면밀한 적지선정 작업 끝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깝고 조선소 입주단지인 산진단과 인접해 요트 수리가 편리한 북항을 최종 결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